

국립광주박물관, 지역학 연구 성과물 출판

박물관 소장품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보고서 박동춘 기증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1 - 가련유사'



국립광주박물관이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학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학술조사·연구 성과를 종합한 출판물 2종을 발간했다.

먼저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보고서는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인 쌍사자 석등(국보)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관리·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획했다.

이번 보고서는 쌍사자 석등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을 당시 문서와 사진자료를 종합해 밝혔고, 석등의 구조와 미술사적 가치, 과학적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목된다.

쌍사자 석등은 광양 중흥산성 내 산림에 세워져 있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1931년 4월 산림 소유주는 오구라 다케노스케에게 해당 유물과 소재지 산림을 매각했고, 오구라는 이를 대가로 반환하려 했으나 면민과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옥룡면사무소 옆에 방치되던 쌍사자 석등은 1991년 6월 보존상 문제를 우려한 광양경찰서 보고에 의해 1992년 2월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전됐고, 1945년 광복과 동시에 국립박물관이 인수, 관리했다. 1990년 8월 국립광

주박물관으로 이관돼 현재 박물관의 대표 전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박물관은 쌍사자 석등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암석학적 분석과 디지털 복원을 수행하고 손상지도도를 작성했다. 석재 비파괴 분석으로 석등 축조에 사용된 암석이 섬강암류라는 것을 밝혔으며, 3차원 가상 재조립 모델 프로그램을 활용해 석등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이로써 석등의 암질에 적합한 보존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발생 가능한 균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

아울러 박물관은 박동춘(사)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이 기증한 문화유산물 체계적으로 조사한 '박동춘 기증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1-가련유사(迦蓮幽詞)'를 발간했다.

박 소장은 정통 다도(茶道)를 중흥시켰던 조선의 승려 초의선사 관련 중요 문헌 자료를 포함한 총 100건 364점의 문화유산을 박물관에 기증했다.

'가련유사'는 초의선사를 비롯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제자들이 1818-1819년 2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회(詩會)의 내용을 엮은 아회록(雅會錄)이다. 참석자는 모



박동춘 소장이 기증한 '가련유사'(왼쪽)와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두 호남의 유학자거나 대흥사 승려들로, 조선 후기 호남 지역 인물들이 종교와 사상을 넘어 총 300수의 시와 차를 나누며 격의없이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번역집은 조선 후기 문화사는 물론 우리 차 문화의 원형 확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 원형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지역학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광주·전남 지역 내 문화유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발굴하고 역사·문화·예술활동의 연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그럼에도 지구에서 살아가려면=장성익 저자
지구의 온도가 오르고 빙하가 녹는다. 높아진 해수면과 이상기후에 기후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지구 종말'이 그리 낯설지 않은 시대다. 저자인 장성익 환경경과생명연구소장은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9가지 녹색 제안을 이 책에 썼다. 기후재앙과 불평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문명과 체제, 그리고 삶의 방식마다마다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전환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풀빛·1만7천원



▶보이지 않는 이웃=양승욱 저자
이 책은 인류 문명과 함께 전승돼 온 신화와 전설,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초자연적 존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현실과 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자연적 존재들, 즉 괴물과 요정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도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신화와 전설 속 정령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교훈과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삶의 목적과 나아가 방향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게 된다. /탐나는책·1만3천원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강철원 저자
'판다 아빠', '판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들려주는 바오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가 출간됐다. 강 사육사는 매일 쓰고 기록한다. 37년간 야생동물을 돌봐 온 베테랑 사육사의 철학이다. 에세이는 그의 일기와 오랜 기록에서 시작됐다. 국내 최초 자이언트판다 민밍과 리리 이야기부터 2016년 중국에서 아이바오와 리바오를 만났던 순간, 아이바오·리바오의 이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푸바오의 탄생 과정과 아이바오와 함께한 극한 공동육아기 등 강 사육사는 그만큼 들려줄 수 있는 애뜻하고 다정한 이야기들을 책에 풀어냈다. /시공사·1만8천원



▶첫가락은 처음이야=이루리 저자
이 책은 처음 무언가를 도전하는 모든 아이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첫 첫가락질을 소재로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 아이의 노력을 응원해 준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접하는 모든 일이 신기하고 설렌다. 처음 무언가를 시도할 때는 서툴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무척 설레고 즐겁다. 결과와 상관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즐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과감하게 도전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다. 동서양 식문화와 우리나라 첫가락질 교육을 다룬 알차고 재미있는 부록 페이지도 수록돼 있다. /북극곰·1만5천원

'몸'의 서정, 노래와 꽃으로 피어나다

본보 필진 박노식 시인 '가슴이 먼저 울어버릴 때' 출간



본보 필진 박노식(사 진) 시인의 시집 '가슴이 먼저 울어버릴 때' (삶이 보이는 창)가 출간됐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은 '몸'의 서정을 다루면서도 몸 너머의 노래와 꽃을 이야기한다.

시집에서는 가슴이 먼저 울어버린다는 것

은 모두 시(詩)와 같다고 말한다. 시인은 사물과 함께 '울음'에 동참하면서 마침내 시를 꽃피운다.

시인이 이렇게 사물의 '울음'에 감응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가슴에 이미 울음이 당도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표제작에서부터 드러난다.

"눈 그친 후의 햇살은 마른 나뭇가지를 분질러 놓는다/때로 눈부심은 상처를 남기고/산세는 그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거나 종



종거리지만/시린 몸이 노래가 될 때까지 겨울나무는 견디나/하지만 그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가슴이 먼저 울어버리기 때문이다"(가슴이 먼저 울어버릴 때' 전문)

시인은 햇살에 가지가 부러진 겨울나무가 '노래가 될 때까지' 견디는 것은 '나무의 가슴이 가슴이 먼저 울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삶 속에서는 상처가 곳곳에 그리고 아무 때나 있다.

또 시는 비바람이나 폭설이 상처를 남기

는 게 아니라 '눈부심'이 상처를 남긴다고 말한다. 여기서 '눈부심'은 광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전에 내린 '눈'까지 포함하는 생(生)의 서사를 일컫는다. 시인에게 생은 결국 '눈부심'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환희'이거나 달관이 이뤄낸 무갈등의 세계가 아니다. 도리어 '시린 몸'이면서 그것을 초월하려는 몸짓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울음'은 그 몸짓의 다른 이름이고, 시인이 가 닿고 싶은 초월의 지리는 '노래'이며 어떤 시편들에서는 '꽃'으로 표현된다.

고명철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편들은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시인이 버려내고 있는 시작(詩作)의 내공이 고루 스며들어 있다"고 평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